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 진행

김일성주석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가 3일과 4일에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본회의장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라는 글밭이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배경으로 걸려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라는 글밭이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배경으로 걸려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세계 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터넷토론회》라는 글밭이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배경으로 걸려 있었다.

자들과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봉카르노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의 개막사에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국제준비위원회와 여러 지역준비위원회 대표들, 주제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토론회장으로 모인 축사를 소개하였다.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님이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세상은 넓고 인류역사는 유구하지만 김일성주석처럼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그듯 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위인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을 창시

하시고 미일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었으며 나라를 인민대중 중심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독립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시고 불려볼가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내용과 깊이, 령역에 있어서 그리고 시대와 력사 발전에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에서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영도자에 의해 빛나게 계승완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어 자주위업의 강력한 보루를 마련하신데

대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번영을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추동하여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거대한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열거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시어 세계 자주화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펠리핀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회고 내발전국위원회 서기장, 캄보디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방글라데시 인민혁명 위원장, 타이주체 사상연구조직 위원장, 몽골 조선친선협회 고문 등 여러 인사들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걸출한 수령으로, 20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불

멸의 업적은 세계 자주화위업 실현의 가장 귀중한 재보 된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인류공동의 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그이께서 개척하신 자주시대의 100년사를 의있게 장식하고 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의지를 과시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일에 조선에서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되며 자주적 역사는 끊임없이 흐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또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즈음한 자카르타선언이 채택되었다.

본사기자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빛내이는 불멸의 대기념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준공 후 10년간 90여만명의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 외국인들 참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주제90(2001)년 8월 14일 기념탑이 준공된 후 지금까지 9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해외동포, 외국인 참관자수는 근 3000개 단체에 1만 5500여명에 달한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웅장하게 일떠선 때로부터 참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탑이 준공된 후 1년동안에만도 10만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 외국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다.

올해에 들어서도 참관자수는 4만여명에 달한다. 기념탑에 즈음한 자카르타선언이 채택되었다.

대하고 합리적인 통일강령을 제시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온갖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람신의 량쪽기단에 조국통일3대헌장,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진족대단결10대강령, 통일조선만세편으로 형성된 부주제군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3대헌장의 기치아래 통일대군을 힘차게 다그치나갈 의지를 가다듬게 하고있다.

참관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면서 많은 나라와 지역의 단체들, 각계층 인사들과 해외동포들이 기증한 820여개의 기념물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해 하였다.

특히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녘의 애국인사기념비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글밭이 새겨진 불

은색의 기념물에서 그들은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캐나다조선인민연합회 회장,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주석의 유혼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영도따라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단마르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전국지도부위원장 등의 외국 인사들은 조국통일3대헌장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은 경애하는 주석과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업적을 전하며 조선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상징하는 불멸의 대기념비로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선군정치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1돐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제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이 1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새로운 리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도 조선이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는 비결은 바로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건설전반을 다그쳐나가는 선군정치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

였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운동발전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승패는 어느 계급과 사회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며 그 역할이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선행리론은 로동계급을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으로 규정하였다. 변화된 현실은 사회주의건설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그 어떤 선행리론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력군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오늘 조선에서는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제국주의와의 대결속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지키고 주요대상건설장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위사단에 대한 헌지지도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었다.

력사적경험은 선군정치야말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고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보장하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증명해준다.

말론 8월 15일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리행과 보수당국의 《대북적대정책》철폐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벌어졌다.

로동자, 농민, 로점상 등 남조선의 80여개의 시민사회로동단체들과 야당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틀간의 《8.15자주통일대회》에서 각종 토론회, 기자회견, 문화제 등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14일 오후 1시 로동자와 학생으로 구성된 통일대행진단이 남조선 전지역순회를 마치고 통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앞에서 《대북적대정책》철폐, 남북공동선언리행, 현인택 통일부장관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서울용산미군기지앞에서는 《전국농민회총련맹》, 《전국여성농민회》 주최로 《대북쌀지원 촉구 8.15농민자주통일결의대회》가 열렸다.

우리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올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미국이 남조선당국과 야합하여 벌리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변함없는 적대본성을 여실히 드러낸 북침책전연습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따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다른쪽으로는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행동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것으로서 그들이 과연 대화에 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따라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파괴하고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후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쪽으로는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다른쪽으로는 대화상대방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의 행동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것으로서 그들이 과연 대화에 진

남녘땅을 진감한 통일의 함성

14일 저녁 8시 서울 여의도공원 중앙무대에서는 3천여명의 민주로동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 반도평화화실현 8.15민주로동당자주통일대회》가 진행되었다.

저녁 9시 서울 여의도문화마당에서는 《(MB정권) 심판, (한) 반도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리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꽂꽂 유어놓으려 시도하고있지만 민중들은 초콜로, 투표로, 거리행동으로 승리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있다.》고 하면서 《(한) 반도평화화호를 위해 자주평화투쟁을 힘차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 후 10년간 90여만명의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 외국인들 참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주제90(2001)년 8월 14일 기념탑이 준공된 후 지금까지 9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해외동포, 외국인 참관자수는 근 3000개 단체에 1만 5500여명에 달한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웅장하게 일떠선 때로부터 참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탑이 준공된 후 1년동안에만도 10만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 외국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다.

올해에 들어서도 참관자수는 4만여명에 달한다. 기념탑에 즈음한 자카르타선언이 채택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또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즈음한 자카르타선언이 채택되었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준공 후 10년간 90여만명의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 외국인들 참관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건립된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주제90(2001)년 8월 14일 기념탑이 준공된 후 지금까지 90여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으며 해외동포, 외국인 참관자수는 근 3000개 단체에 1만 5500여명에 달한다.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웅장하게 일떠선 때로부터 참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기념탑이 준공된 후 1년동안에만도 10만여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 외국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다.

올해에 들어서도 참관자수는 4만여명에 달한다. 기념탑에 즈음한 자카르타선언이 채택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또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에 즈음한 자카르타선언이 채택되었다.

조국 소식

평양민속공원건설 힘있게 추진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이 총공격전의 기상으로 뚫어뻐지고있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민속공원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발휘하여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공사지휘부원들은 공정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말은 대상들을 력사주의적 원칙에 맞으면서도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하도록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다. 력사유적전지구를 맡은 군인들은 130여개 대상의 기초공크리트치기를 앞당겨 끝내고 단군릉, 동명양릉, 왕건왕릉 등의 모형을 설치하였으며 만수대대 기념비, 천리마동상, 주제사상탑, 당창건기념탑, 개선문, 국제친선전람관, 서해감문, 유류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장조물들의 모형들도 건설하였다.

민속촌에서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60여개 대상의 건축물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고구려시기의 관청, 절과 무관, 문관집, 군영, 99칸이 살아나게 건설하도록 시공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그대로 세워졌다. 인민군인들은 용감하게 일떠서는 발해궁전과 고려성관건물의 팔조공사도 완공하고 그 기세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민속놀이구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있다. 활쏘기, 제기차기, 씨름, 휴식터들과 식당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이 이미 완공되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보여주는 대형벽화건립을 위한 축조공사가 완성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력사종합교양구건설에서 혁신이 이룩되고있다.

한편 공원의 료환도로로 장과 상하수도망건설 등도 립체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대상설비생산에 필요한 주물품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주철공장에서-



본사기자

미군 나가라, 북침합동군사연습 중지하라

서울에서 대규모반미투쟁 전개, 각계층 시민 1만여명 참가

남조선의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 준비위원회의 주최로 14일 서울 용산미군기지앞에서 미군의 환경범죄와 합동전쟁연습행동을 규탄하는 집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의 각계층 시민 1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 《한국청년련대》 공동대표 윤희숙 등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남녘민중이 지난 66년동안 미군의 수탈과 압박에 의해 수년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주

둔지들에 고압제를 비롯한 독성물질들을 대량적으로 파묻은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주권문제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미군의 범죄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묵인하는데 대해 허울썩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고 모든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군은 나가라!》 등의 구호를 웨

치고 《주한미군철거》를 부르며 미국기발을 찢어버렸다.

이어 그들은 용산미군기지주변을 에워싸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씩여진 구호판을 가지담벽에 붙이며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본사기자

8월 7일은 내가 태어난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11년에 태어난 내가 100년이 지난 2011년을 맞이하고 조상대대로 꿈꾸어온 강성국가를 지척에 보게 되었으니 너무도 행복스럽고 우리 장군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사랑이 낳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백살을 산다는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 사는것을 오복중에 하나로 일러왔던것 같습니다. 더우기 남쪽에서 폐인이 되었던 제가 백살을 산다는것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

인생 100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니 꼭절도 많았던 지나온 한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추억속에 되새겨보는 삶의 진리가 심장을 울립니다. 조국의 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성한 장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폐는 말초성암조직까지 있었습니...

사랑속에 2000년 9월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길 때 나는 그처럼 감사있었던 조국의 대지를 걸어도 못하고 삼문차에 실려 판문점비리선을 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

진 양복과 조신옷을 차려입으면 싱싱한 젊음이 되살아나 다시한번 거울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관, 유류관에서 성대한 국가연회도 차려주시고 사랑의 생일상도 보내주셨습니다. 재가 백살을 사는것은 재생의 삶을 주시고 젊음을 안겨주시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꽃피운 기적입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길 당시 남...

꼭사람들이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제일 나이가 많은데다 병마에 시들어 열흘을 못 넘길것이라고들 했던 이 몸이 11년세월을 복속에 살고있습니...

대지에 뿌리를 박고 밤에도 해를 따른다. 낮에도 밤에도 봄빛 비쳐주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옥살이기간에 수백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한토막 언필과 한 조각 종이도 금지되고 틀키면 징벌을 받는 감옥살이에서 무엇을 써서 남긴다는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리속에서 시를 쓰고 새겨두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시는 감정의 분출이라고 하지만 내가 시를 쓴것은 감정이 다 감해서가 아니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지키고 옥중고초를 이겨낼수 있는 정신적수단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시는 수형홍모의 노래였고 조국에 바치는 나의 삶이었습니다. 시는 나의 넋을 순결하게 정화시키고 신념을 억세게 다져주는 투쟁의 무기였습니다. 첫 출소후, 모두 잠든 밤에 틈을 엮어서 감옥에서 새겨둔 시들을 종이애더 띠와 행의 구별없이 잘게 써서 감통에 넣어 어머니묘소옆에 묻어놓았습니다. 1975년 보안감호대상 1번으로 또 다시 잡혀가 14년간의 옥살이를 하면서도 계속 시를 썼습니다. 1988년 감옥문을 나서 20년만에 시를 물었던 곳에 가니 그곳은 이미 사태에 밀려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겨우 강통을 찾아 악고 잉크가 번져서 알아볼수가 없고 잉크가 번져서 알아볼수 없는 시는 단 몇수뿐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며 시를 다시 써나가는것도 조련치 않았습니다. 나는 고마운분들의 도움으로 서울 동대문구 일송중도서관사에서 세련의 시집을 내면서 출판날자를 1995년 4월 15일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총화로써 조국의 통일에 대한 확신과 사무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생이 진할 때까지 따르려는 전사의 맹세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이 몸이 쓰러지지 않고 끝끝내 견디어내어 조국의 품에 안길수 있는것도, 오늘까지 백살을 살고 있는것도 평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을 간직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믿는 마음이 크니 생활도 즐겁고 웃음이 꽃됩니다. 조국에 귀환한 이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언제나 생활을 락천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들과 화가 못지 않게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며 전국서예추진에도 참가하고 뜻깊은 상봉모임에도 참가합니다. 회원발진전선장자 여러 건설장들에 찾아가서 경제선동의 복소리를 신나게 울릴 때면 보는사람마다 박수와 찬사를 보내곤 합니다. 지금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나이는 대다수가 80대, 90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보다 더 젊어보이고 건강해보인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교형리들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앗아가려고 별의 별 악착한 고문을 다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마운 품에서 60형춘, 90형춘을 노래하며 로망이장하고 있습니다. 위인을 모시지 못했더라도 우리의 행보만큼은 오늘이 있을수 없고 민족의 밝은 래일로 기약할수 없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남녘로소가 「내에게 믿고살 그리움의 별을 준 그대는 사랑의 하늘」이라고 말을 목에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령 우리 장군님은 우리의 하늘이시고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은 영원한 청춘의 활력소입니다. 수령복, 장군복에 이어 대장복까지 받아안은 민족의 미래는 더욱 무궁창창합니다. (비전향장기수 리종선생은 생일 100년을 며칠 앞둔 7월 19일 뜻밖에도 심장부전으로 예석하게 사망하였습니다. 이 글은 리종선생이 생전에 한 생의 체험과 느낌을 담아 쓴 글을 정리하여 소개한것이다.) 비전향장기수 리 종

얼마전 남조선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58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과 정책적대응방안》이라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국제법학자들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정부)가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남수역을 남조선의 영해로 주장할수 없다.》고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뿐아니라 학자들은 1975년 당시 미국부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문내용도 공개하면서 《북방한계선》의 부당성을 증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북방한계선》은 공해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고 이것은 미국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라고 꼬이여졌다. 더우기 주목되는것은 학자들모두가 《남북간에 이 평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2007년 합의된 서해평화지대안》이라고 단정적으로 당당히 선포한것이다. 학자들의 이번 토론회는

《북방한계선》부정에 대한 민심의 반영으로서 10.4선언의 요구대로 정세가 긴장한 서해바다를 북남사이의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결코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이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불법, 비법의 유령선이다. 한마디로 《북방한계선》은 국제해양법의 요구와 상대측의 12n-mile(해리)영해권존중원칙, 조선정전협정의 요구와 남조선의 《해양법》, 쌍방합의없이 설정된 점 등을 놓고볼 때 극히 허황한것으로서 그 존재가치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남조선호전세력은 지금까지 《북방한계선고수》

를 계속 고집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감한 해역인 조선서해해상에 전투함선들을 불법 침입시켜 정세를 극도로 야기시켰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조선서해에서는 북남쌍방사이에서 일종한 군사적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곤 하였다. 하기에 북과 남은 력사적인 10.4선언을 통하여 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어있는 조선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조선서해를 민족번영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은 집권하기 바쁘게 《북방한계선》을 《평도적경계의 선에서 절대로 양보하여서는 안된다.》느니 뉘니 하고 떠벌이며 그의 《고수》를 정책화하는

한편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침범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남조선군부당국이 도발하여 발생한 연평도포격사건은 그에 대한 대표적 사례이다. 군사적충돌이 해상을 벗어나 육지에까지 확대된 연평도포격전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력사적인 10.4선언이 리행되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통탄하며 당국의 10.4선언리행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평화수호》에 대한 단 한조각의 지향과 의사라도 있다면 민심을 귀를 기울이고 10.4선언리행으로 나가는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북침야망에서 살 길을 찾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도발》이니, 《뱃배의 응징》이니 하

는 호전적인 폭언들을 늘어놓으면서 서해 5개 섬수역의 전방면력에 대한 협동작전과 화력지원임무를 선제공격적으로 새롭게 확정하고 대대적인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최근에 와서도 남조선호전세력은 극도로 긴장한 서해지역에 《대북성체공격》기지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서해 5도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까지 발표하였다. 이것은 《북방한계선》을 기정사실화하여 이 지역을 기어이 북침전쟁발발을 위한 전초기지, 공격발발지로 만들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도발책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서해수역에는 고도의 긴장이 조성되고있다. 그것이 언덕 어느 시각에 전면전의 불길로 라번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황금력

얼마전 《청소년통일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발대식 이라는 데 참가한 현인택은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느니 뉘니 하며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배라투민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열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변국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도 하였다. 한마디로 이것은 현인택이 허황한 기 짝이 없는 《홍수통일》야망을 또 다시 드러내놓은것이다. 그가 이번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래통일 (한반도의 트루트)로 대가 될것》이라고 한것도 바로 그런 속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후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지금까지 남조선 보수당국의 모든 《대북정

책》은 그 누구의 《봉피》를 가상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야망 밑에 짜여졌으며 남조선집권자가 직접 나서서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통일하는것이 최후 목표》라고 공공연히 력설하였다. 남조선보수당당이 그 누구의 《봉피》를 망상하며 반공화국대결과 모략으로 집권 3년반을 지나보냈지만 공화국의 정치군사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봉피의 위기에 직면한것은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에 보수당관계를 쇄락의 죽연에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다. 하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세력들까지도 《(정부)가 (대북강경책)을 지나치게 고집하다 남북관계와 국민여론을 필요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며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수정을 요구해나가고있는 형편이다. 최근에도 남조선 집권자는 《통일이 한반도에 도적같이 울것》이라느니 뉘니 하며 속된 《통일》라령을 늘어놓았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오늘 북남관계는 대화나 대결이나,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엄숙한 기로우에

파쇼악법의 철폐와 랑심수석방을 요구

남조선의 50여개 정당, 로동, 인연, 사회단체들이 서울에서 당국의 파쇼적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진보적인 통일애국인사들과 생존권투쟁에 나선던 로동자들, 통산철거민들을 비롯한 수백명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국민들이 부익부, 분사기자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에 항의

남조선의 민주생평화통일주권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과 각계층 시민들이 12일 서울구치소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조작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보안법 폐지!》, 《민족대결과 공안정국 조성하는 정부 심판!》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통일운동가들을 철창속으로 끌어간 집권세력의 죄행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구속한 진보련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를 비롯한 인사들은 죄인

변화의 대상은 누구인가

최근 조선반도정세는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흐름을 타고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중분분하게 나서서 《북의 태도변화가 중요하다.》느니 뉘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나고있다. 남조선에 현 보수당국이 들어선 이후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만을 걸어왔다. 올해의 북남관계현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정초 공화국은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민족앞에 드려온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폭넓은 대화를 진행할것을 남조선당국에 짐심으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통일부 장관 현인

아직도 꿈속에서 헤맨다

얼마전 《청소년통일미래 글로벌 리더십 캠프》발대식 이라는 데 참가한 현인택은 《통일이 다가오고 있다.》느니 뉘니 하며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배라투민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열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변국이 지지하고 동의하는 평화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도 하였다. 한마디로 이것은 현인택이 허황한 기 짝이 없는 《홍수통일》야망을 또 다시 드러내놓은것이다. 그가 이번엔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래통일 (한반도의 트루트)로 대가 될것》이라고 한것도 바로 그런 속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후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부르짖으며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지금까지 남조선 보수당국의 모든 《대북정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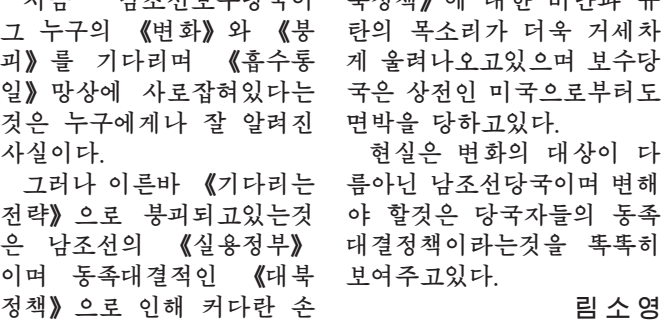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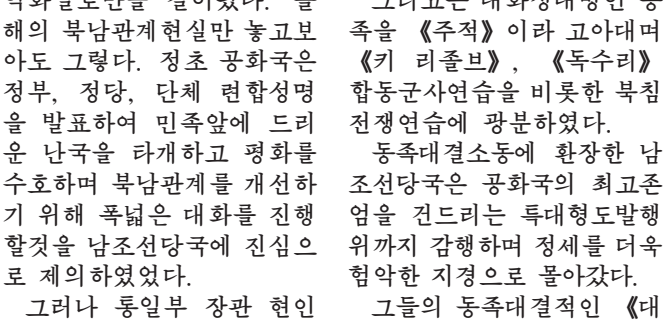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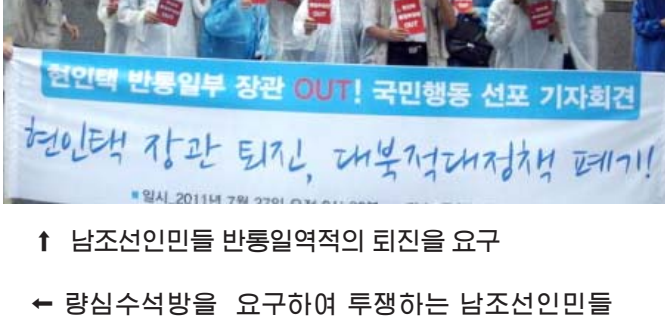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현인택 장관 퇴진, 대북적대정책 폐기!



↑ 남조선인민들 반통일역적의 퇴진을 요구
← 랑심수석방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